

동해안 물류 시대의 서막을 열다

11월 준공 앞둔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거점 항만의 토대 다져

현대건설이 항만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동해안 물류 시대의 서막을 연다. 현대건설은 1959년 ‘인천 제1 도크 복구공사’로 해양 인프라 건설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등을 건설하며 독보적인 해양 인프라 공사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그리고 오는 11월, 현대건설의 견고한 해상 시공 노하우에 기술력을 더한 또 하나의 역작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7년 6월 착공한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는 동해시 송정동 동해지구 전면 해상에 방파호안(539m), 동방파제(150m), 친수호안(759m)과 부대공 1식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의 리더로 총 2013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율을 해소하고 시멘트 등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관계자는 “동해의 고파랑과 해상 날씨 등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겨내고 공정을 94.8%로 순항 중”이라며 “전 임직원이 품질 시공·안전관리에 고비를 조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관련기사 6, 7면

Hyundai E&C entered the maritime infrastructure market in 1959 through the Incheon Harbor dock restoration project. Since that, Korea's foremost builder has solidified its leading position in the construction of maritime infrastructure by building Saudi Arabia's Jubail Industrial Port, counter facilities at the Yeosu New North Port, and the Incheon Por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Phase 2). In coming November, the builder is expected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another masterpiece: The Donghae Port Phase 3 shore protection project (Section 1) aims to construct the 539-meter seawall, the 150-meter East breakwater, the 759-meter water affinity shore protection block, and secondary work. As part of the Donghae Port Phase 3 development initiative which is slated to be finished by 2030, this project was designed to reduce the demurrage rate at the Donghae Port and respond to an increasing volume of raw materials. ▶ Continued on page 6, 7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현장

CEO 칼럼

‘현대건설 원팀’을 위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울해 보이던 사람들의 얼굴에 모처럼 생기가 돋는다. 도쿄 올림픽에서 전해오는 한국 선수단의 승전보 덕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남자 양궁 단체전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지만 17세의 김제덕, 29세 김우진, 40세 오진혁으로 이뤄진 우리 선수들의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완벽한 호흡이 인상 깊었습니다. 양궁 단체전은 선수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을 쏘는 속도와 타이밍을 서로 잘 조절해야 하고, 먼저 쏜 선수가 후발주자에게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스무 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선수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원팀’이었습니다. 조카뻘 되는 막내가 목청껏 “코리야 파이팅”을 외치는 가운데 수세에 몰렸을 때도 서로 격의 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주먹을 맞부딪치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저에게는 금메달 같

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M세대니 Z세대니, 90년대생이니 하는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들 세대의 독특한 시각과 세계관, 생활 방식 등을 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보노라면 요즘 젊은 층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신인류 같은 면모도 보입니다. 앞으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함께 팀을 이뤄 미래를 열어가기 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대론’은 어디까지나 특정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출생 시기별로 전체의 특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낱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설명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세대론’이 워낙 범람하다 보니, 사람들 간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 친구는 Z세대라서 그래” 하는 식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현상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회사 현장 직책자들과 면담을 해보면 “Z세대는 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된다”는 고충 아닌 고충도 듣게 됩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Z세대의 당당함과 자기중심적 성향, 엄격한 공정성 때문에 관한 꼬투리를 잡힐까 싶어 아예 말조차 건네지 않게 된다는 웃픈 얘기들입니다.

우리 남자 양궁 대표팀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세대 구분 없이 격의 없는 소통으로 ‘원팀’을 이뤄냈습니다. 선수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스스럼없이 다가서지 않았다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팀워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건설도 올림픽 선수들처럼 ‘글로벌 톱’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X, M, Z식의 세대 간 장벽을 뛰어넘는 열린 소통으로 ‘원팀’을 이룬다면 우리도 목표 달성을 보다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최영준

New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in Peru

Hyundai E&C wins an order to build a gateway to Machu Picchu

Our company has received construction orders in succession in Peru amid the pandemic crisis.

Hyundai E&C has won the order to build the Chinchero New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valued at 493 billion won from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Peru. This is a follow-up project of the order for the Chinchero New Airport site preparation project clinched by our company earlier this year. Our company formed a joint venture with global companies such as Sinohydro,

ICA and HV Contratistas to successfully land the order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hinchero New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This project was intended to build a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can serve 5.7 million travelers on an annual basis. The new airport will be located in Chinchero, 15 kilometers northwest of Cusco, a gateway to Machu Picchu which is a globally famous historic site for Inca civilization. The new international airport will have cutting-edge, eco-friendly

aviation facilities such as terminal buildings, control towers, runways and aprons. The construction period is 47 months. Our company adopts fast-track construction as a project delivery strategy in which the design and construction are conduct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our company plans to digitalize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ranging from design and construction to maintenance by introducing the state-of-the-ar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technology.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수주 ... 마추픽추 관문 세운다

글로벌 기업 포함된 J/V의 리더 ... 올 초 신공항 부지정지 공사에 이어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공사 따내

우리 회사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신시장인 페루에서 수주 켈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페루 교통통신부가 발주한 약 4930억원(4억2800만 달러) 규모의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본공사를 따냈다. 이 프로젝트는 연초 수주한 신공항 부지정지 공

사의 후속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멕시코·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된 J/V(Sinohydro, ICA, HV Contratistas)의 리더사로 참여해 수주의 패거리를 거뒀다. 당사 지분은 35%, 약 1725억원 규모다.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본 공사는 세계적 일카문화 유적지인 마

추픽추를 여행하기 위한 관문 쿠스코(Cusco)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친체로(Chinchero)시에 연간 5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조성하는 공사다. 신공항은 터미널 빌딩과 관제탑,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최첨단 친환경 공항시설로 시공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47개월(하차보수 포함, 총 계

약 기간 63개월)로 설계디자인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최첨단 선진 설계 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디지털화에 관리할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기술·상업 부문을 망라한 종합평가 결과 스페인-이탈리아 업체로 구성된 경쟁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뛰어난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공사를 따냈다”며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마추픽추 건설사업 등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yundai E&C Sustainability Report 2021 published

Our company is accelerating its effort for global ESG management by publishing the Hyundai E&C Sustainability Report 2021 showcasing four divisions and 12 propelling strategies to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This report is the first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o apply the World Economic Forum's 4P metrics of Prosperity, Planet, People and Principle, presenting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s well as non-financial performance with regard to each area, such as strengthening global com-

petitivenes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enhancing safety and health implementation and enhancing value chain capability.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박사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우리 회사가 지속가능경영 4대 부문 목표와 12대 세부 추진 전략이 담긴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글로벌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사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의 ESG 정보공개 방향인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사람(People) ▶원칙(Principle) ‘4P 추진체계’를 토대로 구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이행력 제고, 밸류체인 역량강화 등 부문별 세부 추진 내용과 비재무 성과를 반영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확대를 목표로

기존 ‘GRI 포괄적부합기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적용을 비롯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 등 글로벌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확대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탈(脫) 석탄 선언 이해관계자 서신’을 수록해 향후 국내외의 석탄 관련 투자, 신규 사업 참여를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한 내부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대건설 홈페이지(www.hdec.kr) 내 지속가능경영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Our company wins WSH Awards

Our company has received four awards at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WSH) Awards 2021 hosted by Singapore's WSH Council under the Ministry of Manpower.



The WSH Awards is given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contributed to generating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field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This year, our company won the WSH Performance (Silver) Awards. On top of this, the Tuas Finger One reclamation project,

the Tekong Island reclamation project and the Punggol Sports Center project conducted by Hyundai E&C in the city-state received WSH SHARP Awards.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분야 ‘WSH Awards 2021’ 4관왕 달성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WSH Council)가 주관한 ‘산업안전보건 어워드(WSH Awards 2021)’에서 4관왕을 거머쥐었다.

‘WSH Awards 2021’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조직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우리 회사는 올해 ‘WSH Performance Awards’ 부문에서 Silver(은 상)를 받은 데 이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테공섬 매립공사 2단계’ ‘퉁골 스포츠센터’ 등 3개 현장이 ‘WSH SHARP Awards’를 수상했다. 특히 ‘WSH Performance Awards’는

싱가포르 전 산업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 부문에서 최상의 실적을 보인 기업에 수여한다. 이 상은 싱가포르 내 3600여 건설사 중 약 20개 기업만이 수상할 만큼 가치가 높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상으로 뛰어난 시공 능력과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건설 대상의 5개 부문에서 총 45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주최하는 ‘WSH Awards’에서는 총 14회 수상 실적을 거두며, 싱가포르 내에서 현대건설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Groundbreaking ceremony for Innovative Nuclear Research Complex

Ceremony held with the attendance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Hyundai E&C CEO Yoon Young-joon

The Innovative Nuclear Research Complex project has been kicked off by holding a groundbreaking ceremony on July 21. Our company i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research complex.

This project, which will play a central role in next-generation nuclear power research, aims to build cutting-edge research buildings,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facilities and high-precision analysis facilities.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research complex is expected to become a mecca



for nuclear power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regard to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s (SMRs) and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of decrepit nuclear power plants by joining hands with the nuclear

power cluster in Gyeongsangbuk-do province.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착공 ... 차세대 친환경 연구 개발 전초기지로 비상하다

7월 21일 경주 감포읍에서 열린 착공식 ... 우리 회사 윤영준 사장 참석해 자리 빛내

우리 회사가 시공하는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구축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현장이 7월 21일 착공식을 갖고, 협찬 출발을 알렸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리 회사 윤영준 사장, 용흥택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이 프로젝트는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및 대본리 일대 15만3418㎡ 규모 부지에 첨단연구동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정밀분석시설 등을 조

성하는 공사다. 준공과 함께 경북 원자력클러스터와 연계해 향후 소형원자로(SMR) 및 노후 원전 대체 기술 개발 등 원자력 연구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특히 SMR은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전 세계가 합심해 추구하는 목표인 2050 년

소중립의 해결사로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기술형 입찰로 진행된 심의에서 1위를 기록하며 2323억원(VAT 제외)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부지 조성·토공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시설 등 원자력 기반시

설과 미래 원자력 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 및 지원 시설 총 17개 동(연면적 5만 7821㎡)을 짓는 1단계 공사다.

회사 관계자는 “SMR 연구개발의 전초기지에 첫발을 딛는 중요한 사업을 맡은 만큼 현대건설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개발한 RBE(Risk Based Execution) 시스템 ... 플랜트 현장 도입 성공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위험도기반법(Risk Based Method)을 적용한 RBE(Risk Based Execution) 시스템을 개발, 플랜트 시공 단계부터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RBE 시스템은 발생 확률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기계·장치·배관·전기·계장 등 아이템별로 분석, 위험 등급에 따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공 리스크 관리는 현장 문제 예방 가이드(PTSG) 중심으로 이뤄져 등재되지 않은 문제는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쉽지 않고, 설계·구매·시공·시운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문제 발생 확률(PoE: Probability of Event)과 피해 정도(CoE: Consequence of Event)를 계산해 위험 등급별로 차등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험 등급은 총 9단계로 나뉘며, 등급별로 관리가 이뤄진다. 시공 담당자는 성격이 다른 체크리스트(▶General Check List ▶Specific Check List ▶User Defined Check List)를 상세히 입력해 시운전 담당자에게 넘기고, 시운전 담당자는 운영 중 발생한 사고, RCA 결과 등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시공 담당자, 파드장, 수행팀장, 품질팀장 등에게 메일로 공유된다.

RBE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플랜트 시공의 노하우 축적에 도움을 주고,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사우디 마잔 오일처리 시설 신설 및 확장공사 현장,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 공사 현장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0년 초부터 순수 현대건설의 인력으로 TIT를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세계 최초로 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성공했다”며 “향후 설계, 시운전 단계 등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고 모든 신규 플랜트 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최초 빌트인 음성인식기기 이용한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건설사 최초로 빌트인 음성인식 기기를 이용한 홈투카(Home to Car)/카투홈(Car to Home) 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리 회사는 2019년 상용화를 시작한 카투홈 서비스에 새로운 홈투카 서비스를 더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카투홈 서비스는 자동차에서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빌트인 기기를 제어해 집 안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가스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세대 내 환기 등을 컨트롤할 수 있다. 반면에 홈투카 서비스는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인 ‘보이스홈(Voice-Home)’을 이용해 집에서 음성 명령으로 자동차 시동, 문잠금, 경적, 비상 등, 온도 조절, 전기차 충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홈투카/카투홈 서비스는 올해 8월 입주를 시작한 ‘디에이지’ 자이 개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와 자동차의 커넥티드 카 기술이 집안 된 플랫폼으로, 집과 자동차가 서로의 장벽을 넘어 상호 연결되는 미래 기술을 보여준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건축주택기술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해 건축물과 자동차가 연결되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상품을 도입하는 등 두거문파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2021년 하반기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2021년 하반기 국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단계별로 ▶1차(Global HSE, 건설장비정비관리, 플랜트 설계관리, 플랜트전기, 건설공사관리)는 8월 18일까지 ▶2차(BIM건설관리, 전기설비시공실무)는 8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차(스마트에너지관리, 건설품질관리, Global HSE)는 9월 16일부터 11월 17일에 걸쳐 모집한다. 총 8개 과정 294명을 선발하며, 교육비 전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동종 업계를 비롯해 협력사의 국내의 현장에 취업이 연계된다. 또한 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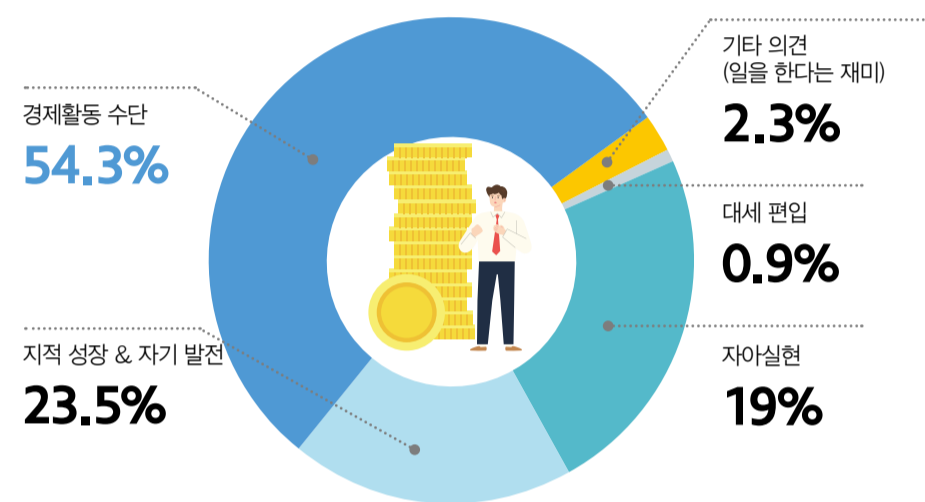
부터는 현대 건설 채용우대(특별채용, 실습제도)가 제공된다. 지원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edu.hdec.c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졸 이상 취업 희망자



회사에 누구보다 진심인 편?! 현대건설 MZ세대 마음 돌보기

Survey MZ세대는 1981년부터 2000년 초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단어다. <사보신문>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워크 & 라이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7월 21~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은 응답자는 1375명. 높은 참여율 만큼이나 우리 회사 MZ세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획·정리=박연희

☑ 열일 하는 당신이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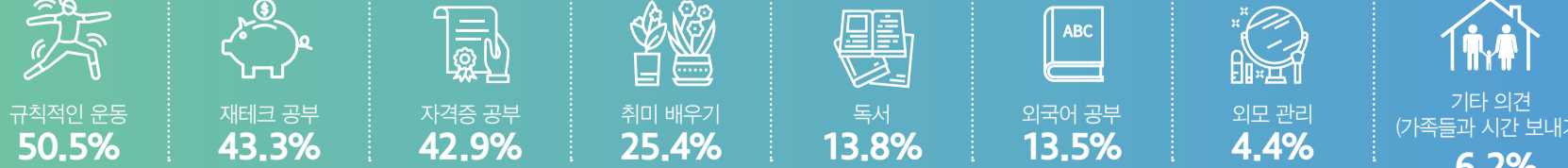
☑ "이 맛에 일하지!" 영양제보다 더 힘이 나게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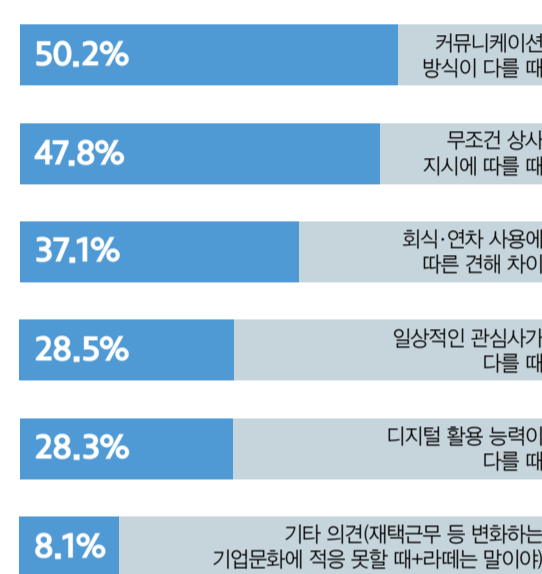
☑ 현건인으로서 이럴 때 자부심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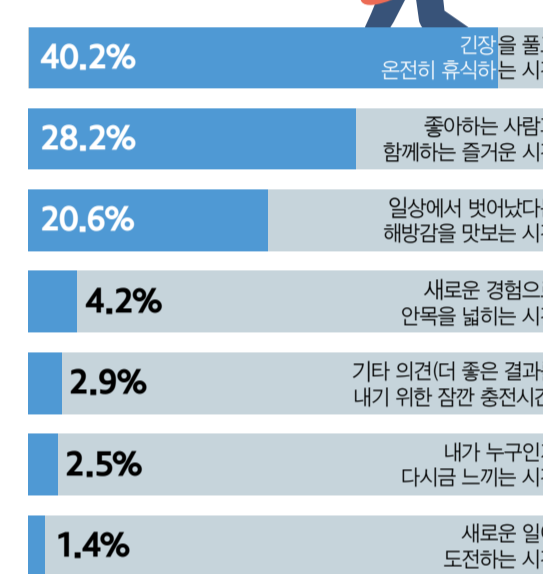
☑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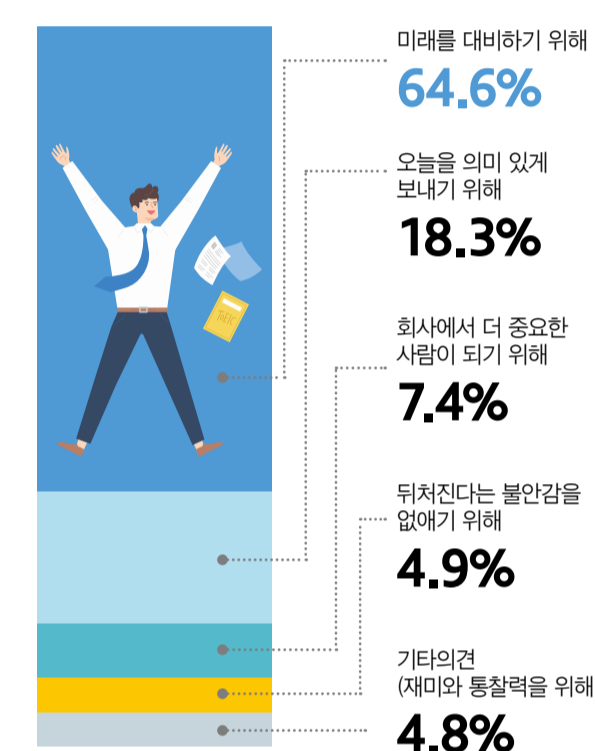
☑ 회사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는?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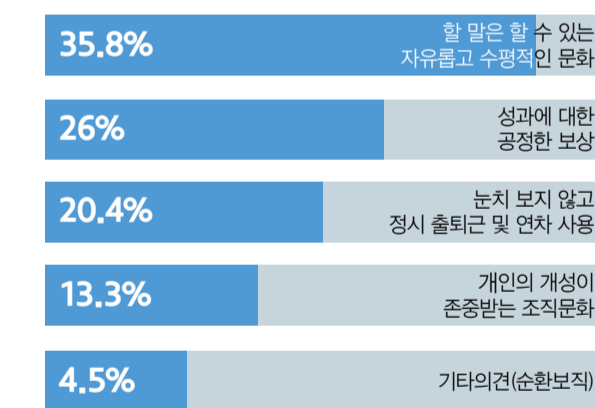
☑ 연차(휴가)가 주는 의미는?



☑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는?



☑ 회사에 가장 바라는 것은?



☑ MZ세대인 나와 소통하는 팀을 준다면?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소통의 시작
- 텍스트로 명확한 업무 지시는 필수, 메신저 & 이메일 대환영!
- 간단한 업무 보고는 메신저, 이메일로 하고 싶어요!
- MZ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기성세대와 소통하려고 할까, 라는 사고의 전환 필요
- 개인적인 질문은 사당, 개인 SNS 팔로우는 노노!
- 화법만 바뀔도 100점! 변화하는 기업문화에 관심 가져주세요-
- 가르침보다 공감을 더 원합니다

☑ 재택근무의 장·단점은?

장점	단점
개인 업무 성취도 높음	재택근무에 대한 상사들의 부정적 인식
업무-사람 스트레스 감소	동료들과 즉각적인 소통·협업이 어려움
회의, 잡무 등으로 인한 방해 없이 업무 몰입	워크 & 라이프 경계 모호
출퇴근 시간 단축에 따른 피로 감소	회사와 다른 오피스 환경 (듀얼 모니터 등)

☑ 재택근무 시 업무 몰입도는?

51.9%	39.5%	8.6%
잘 된다	그저 그렇다	잘 안 된다

'내'가 중요한 MZ ... 기성세대만큼 일에 진지한 이유

MZ세대는 미스터리아다. 회사에는 불참하는데 업무에는 열정적이다. 관심 없는 듯 지내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회사에선 협업이 아닌 거기까지, 사생활에 대해서는 먼저 선을 그어놓고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다가야 할까. 글=김요정 (주근초산) 기자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소통하지 않는 것, 이 힘 빠지는 결론은 MZ세대를 알면 알수록 정답처럼 보인다. 살마리는 '나라는 단어에 있다. MZ세대는 일종의 해체 주이다. MZ세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에 물음표를 던진다. 왜 취직하고 나면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회사에 꼭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진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음표가 모든 것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음표는 '나와 관련된 것에서 주로 생겨난다. 다시 말하자면 MZ세대의 기준은 '나'다.

저출산 문제를 떠올려보자. MZ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다른 답이 나온다. 출산은 MZ세대의 '나'를 잃어 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MZ세대는 출산 이후에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보고 듣고 자랐다. "그만큼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뒤따르지만 비(非)출산을 결심한 MZ세대의 경우 이미 알고 있다. 자유롭게 떠날 여행이 가지 못하고, 퇴근 후 자유 시간도 없다. 자기계발이란 뒷전이고, 월급의 대부분을 아이를 위해 쓴다. 특히 실제로도 경력단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여성에게 출산은 곧 '나'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MZ세대에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자가 되어라'는 식의 출산장려 구호는 황당하게까지 느껴진다. "내가 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죠? 내 삶을 챙기기도 바쁜데." 한 MZ세대의 불평은 MZ세대가 '나'를 잃는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말해준다. 이 문제는 곧바로 MZ세대 신입사원들의 태도를 이해하게 만든다. MZ세대 신입사원에게 회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경제적 능력을 키워줄 회사, 자존감을 높여줄 회사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기준은 '나'다.

현대건설 (사보신문)이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MZ세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월급'(36.1%)이다.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른 데 있지 않다. 나의 자갑(54.3%)이나 성장(23.5%)에 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현건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에 대한 응답이다. 회사의 위상이 달라진 걸 느낀다거나 대형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많은 MZ세대 직원은 '존경 받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들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말하자면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만이 MZ세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그것보다는 내가 만족스럽게 다닐 수 있는, 혹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한다.

MZ세대가 이기적이라고?

'나'의 만족과 행복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마치 회사에 관심 없어 보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 MZ세대 만큼 까다로운 직원도 없다. 이들은 아무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살인적인 취업난 속에서도 MZ세대 취업생들은 쉽게 눈을 낮추지 않는다. 컷대가 높아져서 아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회사가 아니라면 오래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 3년간 조사한 '대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이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봉 수준과 복지 제도다.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기준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라는 응답이 다소 낮게 나온 것과 비교해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MZ세대 대학생에게 좋은 기업이란 '나'에게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다.

MZ세대는 어떤 경우 조직에 친화적이다. 상사와도 잘

발히 소통하고, 회사에 충성을 바치기도 한다. 그 조직의 핵심은 '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현대건설의 MZ세대 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를 보면 '자율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개인 업무 성취도가 높다'거나 '나만의 공간'이 주어지고 '접수가 없다'는 등 나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 MZ세대 직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기성세대와의 차이가 느껴질 때는 묻는 질문에서도 과반수 가까운 응답자가 '무조건 상사 지시에 따를 때'(47.8%)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나의 결정권이 닿지 않는 일을 꺼리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MZ세대가 회사를 싫어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회식처럼 내가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시간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Z세대라고 해서 상사와의 자리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롭고 수평적인 자리가 만들어져 MZ세대 스스로가 술잔을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로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으며 "이만하면 집에 갈 시간이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다. 설문조사에서 '회사에 가장 바라는 것'으로 꼽힌 '할 말은 할 수 있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35.8%)는 바로 자율성과 관련된 것이다. 내 업무를 내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된다면 MZ세대의 일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능성에 대한 욕구도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 '지적 성장'(23.5%)이었다. 일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MZ세대의 희망이 읽히는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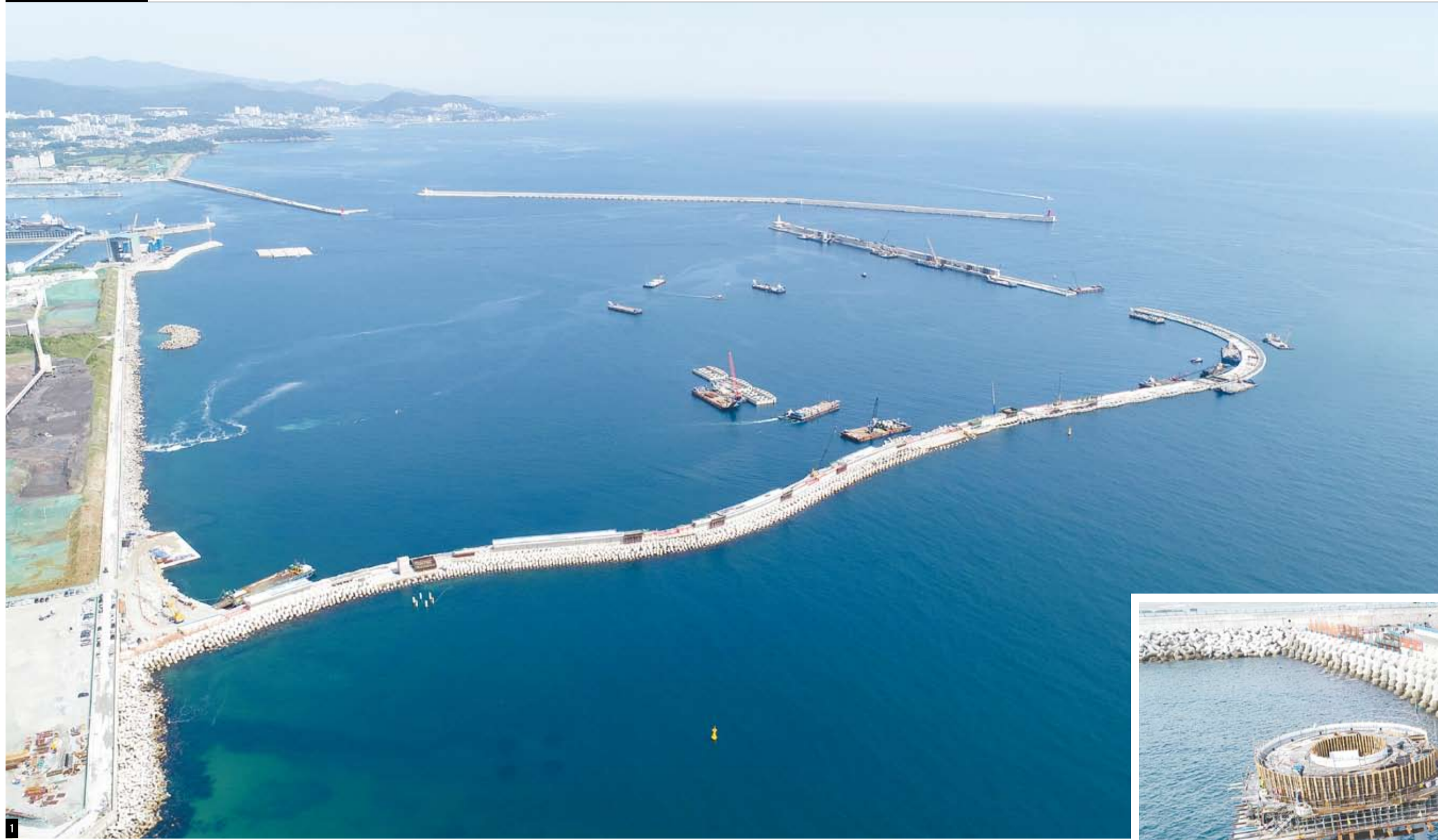
MZ세대와의 소통 '일'에 맞춰야

MZ세대가 일에 임하는 자세는 기성세대만큼이나 진지할 수도 있다. 직접 일을 조직해 책임지고 마무리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일은 일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영향력하에 놓인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임하기도 한다. 반대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MZ세대는 급격히 일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MZ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은 이 부분에서 어긋난다. MZ세대에게 회사에서의 '나'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 맺음이나 친밀감이 아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회사 밖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다. 대신 회사는 오롯이 '일을 하는 곳'이다. 그 일이 때로는 스스로 즐거워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억지로 하는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휴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가 '긴장을 풀고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40.2%)이라고 답한 데서도 엿보인다. MZ세대와의 소통은 보다 더 '일'에 집중돼야 한다. 잡담은 MZ세대에게 소통이 아니라 '상사와의 의무적인 대화 시간'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명확한 업무 지시, 결과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등이 제대로 된 소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소통을 하지 마라"는 결론은 이렇게 도출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변잡기로 시작하는 소통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 어때?" "결혼 소식은 없고?" "지난 주말에 뭐 했어?" 같은 질문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다. 회사 밖 MZ세대의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대신 회사 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시작해 보자. 오롯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 MZ세대가 바라는 기성세대와의 소통 모습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현장 & 토목해양항만설계팀

동북아 물류 거점항, 세계 무대 출정의 닻을 올린다

현장&사람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 지구 전면 해상. 드넓은 바다 위에 굽직하게 그려진 한 획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이 환동해권 물류 중심 거점항으로 도약하는 개발 공사 현장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설계와 안전하고 정밀한 공사로 최상의 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장은 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글=이진우

동북아 최고의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할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현장’

1979년 개항 이후 북방교역 및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동해항.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정체되는 선박과 원자재를 원활히 소화하고,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북방파제 1:2공구와 방파호안 1:2공구로 구성된 3단계 공사 중 우리 회사는 방파호안 1공구 축조공사를 맡았다. 현장은 설계시공일괄 입찰(T/K) 형식으로 150m의 동방파제, 539m의 방파호안, 759m의 천수호안 및 부대공 1식을 시공한다. ▶2017년 6월 착공 및 등부표 제작 ▶2018년 4월 지방계량공사 및 준설 ▶2018년 5월 사석 경사제 기초공사 ▶2019년 9월 케이스 제작 및 거치 ▶2020년 5월 케이스 거치 완료 및 상부 공사를 거쳐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다. 방파제와 방파호안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만 내 해수면의 안정 상태를 뜻하는 ‘항내 정온도(港内靜穩度)’를 확보하고 바닷물이 방파제의 마루를 넘는 ‘월파(越波)’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현장은 인근 해역 파도의 흐름, 주변 시설물로 인한 파도 진행 방향 등의 분석 결과와 실험을 통해 100년 빈도 설계파, 마루높이 최대 DL(+) 14.5m로 대폭 상향한 설계를 적용했다. 고파랑·대수심·내진·연해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데 더해 현장은 원지반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석회암 공동(空洞)에 3단계 맞춤형 보강 계획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고, 상세 해석과 추가 검토를 거듭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넉넉히 확보했다. 최적의 설계로 시설물의 기능 또한 극대화했다. 우선 방파제 케이스는 전면에 수리(水理) 특성이 가장 좋은 경사제 형식을 취하고, 방파제 전 구간과 방파호안에 각각 소파블록 70% 피복과 오픈슬

릿 케이스를, 방파제 제두부에는 3면 오픈슬릿 케이스를 적용해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방파호안에는 1단계 항내 측 격실 오픈형 케이스, 2단계 반구형 딤플(Dimple-움푹 들어간 곳), 3단계 반파공, 4단계 마루높이 상향, 5단계 내측 파라넷 설치를 적용한 5단계 반파형 상치 설계를 도입, 파도를 완벽히 차단해 방파호안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외형적 아름다움까지 더했다. 동해안을 가로질러 나가는 대규모 항만공사 현장인 만큼 높은 파도와 기후변화는 가장 큰 이슈다. 소위 ‘집재만 한’ 파도의 출현에 현장을 지키느라 다급해지기도 부지기수. 1년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태풍이 3~4개월간 공사한 사석, 피복석 등을 모두 휩쓸어 가 큰 상실감을 느낀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해상장비를 조기 투입해 사석경사제를 빠르게 완성하고, 케이스 또한 수개월 앞당겨 작업함과 동시에 피해복구 작업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했다. 공사 보험금 또한 작기에 수행해 현장 운영을 원활히 이 어갈 수 있었다. 현장은 곧 상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천수시설 공사에 돌입한다.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을 갖춘 바다 위 공원이 완성되면 관광객들은 근처의 훗대바위, 추암해변과 더불어 한해의 절경을 즐기고 항만 종사자 또한 편히 쉬어갈 수 있다. 대자연의 바다와 어우러져 세계적인 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장.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해결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던 건 현장의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곧 선박과 무역 물자, 관광객으로 활기를 띤 현장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동해안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현장 전경. 2 월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방파호안에 5단계 반파형 상치 설계를 도입했다. 3 방파제 제두부에 3면 오픈슬릿 케이스를 적용해 항내 정온도를 확보했다. 4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바다 체험 스카이워크 시공 현장.



광활한 바다 위에 최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목해양항만설계팀’

바다 위로 세계를 잇고, 바다의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삶을 지켜 내는 일. 우리 회사는 해양항만 건설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 해상 인프라 건설 신화를 그려 왔다. 도전적인 아이디어와 탄탄한 시공력으로 독보적인 시공 실적을 쌓아온 현대건설. 실험에 가까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현장에 실현시킬 수 있었던 중심에는 토목해양항만설계팀이 있었다. 토목해양항만설계팀은 토목사업본부 내 해양항만 분야 기술 담당 조직으로 국내외 해양항만 프로젝트 입찰설계와 설계 관리를 맡는다. 외주 설계사와 함께 우리 회사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최상의 설계안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 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기술 지원을 물론 현장에 직접 파견돼 설계 업무를 진행하는 것 모두 이들의 몫이다. 특히 해외입찰의 경우 외주 설계사를 활용하는 대신 대부분 자체 설계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는 업계에서 차별화된 우리 회사만의 강점이다. 실제로 전 세계 시공사 중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한 곳은 우리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러한 역량은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매체인 ENR(Engineering News-Record) 해양항만 분야에서 Top Contractor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토목해양항만설계팀은 방파제, 안벽, 호안, 준설 매립 등 기존 업무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상풍력, 조류발전 등 신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며 해양항만 분야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수많은 프로젝트 입찰, 현장 지원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실무 감각은 까다로운 세계 무대에서도 여지없이 빛을 발한다. 엄격한

월과 기준 때문에 거대하고 많은 물량이 소요되는 호안 단면 사석부를 설계해야 했던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공사. 이 현장에는 사석 물량을 줄이면서도 월파를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 우리 회사 특허 기술인 ‘이중곡면반파공(특허등록 10-1072481)’을 대안 설계로 제시했다. 예상되는 효과가 우수했으나 해외 적용 사례가 없어 발주처의 신뢰를 얻기 힘들었던 상황. 수치해석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고, 수주 후 수리모형실험으로 다시 한번 적절성을 검증해 발주처 승인을 받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악화되는 경제적 상황 속에 건설업계 해양항만 분야의 경쟁 또한 점차 심화돼 왔다. 이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탁월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토목해양항만설계팀은 기술연구원과 협업해 ‘B/T(부력탱크)를 활용한 L형 케이스’를 개발했고, 지난해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 포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이미 독보적인 실적을 보유한 케이스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더욱더 확고히 해 활발한 수주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끈끈한 팀워크로 매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리는 토목해양항만설계팀. 수개월간 공들인 프로젝트를 수주한 순간의 기쁨, 함께 고생한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의 아쉬움, 현장의 현안 상황을 해결해 내며 느낀 보람. 모두 토목해양항만설계팀이 파이팅을 외치는 원동력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진보다 더 활발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힘쓰겠다”는 이들의 포부가 너른 바다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느껴진다.

“안벽 설계·안벽 시공으로 동해항의 발전을 함께 그려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문규 책임 (이하 최 책임) 안녕하세요. 토목해양항만설계팀 최문규 책임입니다. 현재 항만 사업의 국내외 입찰 및 현장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풍력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 반갑네요!
송대명 책임 (이하 송 책임) 안녕하세요.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1공구 축조공사 현장 송대명 책임입니다. 사업지원팀장으로서 대내 공무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장 초기에 연락 많이 나누었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김형진 책임 (이하 김 책임) 안녕하세요! 같은 현장에서 공무과정으로서 대외 공무 및 클레임 업무 담당하는 김형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T/K) 현장인 만큼 전체적으로 협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최 책임 입찰 시 합동사무실에서 설계사 직원 약 40여 명, 외주업체 인원까지 약 70~80여 명의 인원이 최상의 설계를 위해 4개월간 수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높은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파제 설계는 기본이고, 항만 종사자의 휴식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쉼터, 바다 체험 스카이워크 등을 구조물 상부에 적용했어요. 이런 요인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공이 어려운 설계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잘 구현해 주셨습니다.
송 책임 턴키에 우선시공분 공사가 있는 현장이었기에 설계가 모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했습니다. 초기에 협제 선정, 발주처 및 사업관리단 협의, 인허가 업무 등으로 상당히 바빠 실시설계 업무까지 하는 게 부담이었었는데, 토목해양항만설계팀에서 실시설계 설계사 작성, 설계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진행해 주셔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김 책임 워낙 설계가 잘 돼 설계변경이 많지 않았지만 시공 중 안정성 또는 구조를 검토할 때 많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치 콘크리트 신축이음 변경 건인데, 케이스 양 끝에 위치한 신축이음의 간격을 좁혀서 균열을 최소화했어요.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꼽는다면요?

최 책임 수리 특성을 좋게 하려다 보니 방파호안의 케이스 및 상치 형상 설계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파도가 못 넘어오도록 총 다섯 단계의 차단 포인트를 만든 건데요, 곡선 형태의 방수벽, 반구형 딤플 등이 있어 시공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 책임 다섯 단계 중 1단계 케이스는 슬립폼을 이용해 24시간 콘크리트 타설로 제작했고, 2~5단계 상부공은 곡선 형태로 타설해야 해 철재 거푸집을 활용했습니다. 제작부터 거치까지 난도가 꽤 높은 작업이었어요. 특히 반구형 딤플 부분은 거푸집을 특별 주문 제작해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송 책임 이 부분에서 설계 접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는 어려웠지만 설계팀에서 기술 지원을 잘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 책임 설계하면서도 시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격정도 됐는데요, 안전성이 중요한 시설물이고, 경쟁설계가 보니 우리 현대건설의 시공 실력을 믿고 설계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잘 시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준공을 앞두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김 책임 업무적으로 소통이 잘 돼서 문제없이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요청드리는 부분이 꽤 있어서인지 입찰부터 마무리까지 설계팀과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송 책임 현재 상부 공사 중인데, 위에서 보면 현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다 위를 거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뤄진 설계 덕분에 시공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책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입찰할 때가 그것과 같은데 벌써 준공이네요. 동해안의 매서운 파도를 이겨내며 어려운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파이팅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승승장구한 ESG 기업들

ESG 칼럼 팬데믹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 기업들 역시 가혹이나 급변하던 경제 환경이 확 바뀌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가능조차 힘들어졌다. 코로나가 초래한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것이 사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생존 해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주목하고 있었다.

글=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저자

지난 10여 년 동안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극대화됐다.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가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다.

ESG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식별해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ESG의 핵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ESG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평균 ESG 리스크에 잘 대비한 기업이라면 어떠한 리스크가 닥쳐도 그 노후를 살려 잘 대처할 수 있다. 실제로 평균 사업장의 작업 환경이나 근로자 복지 개선에 힘쓰는 기업들은 회복탄력성이 좋아 코로나 사태에서도 위기 극복이 빠르게 이뤄졌다.

ESG의 영향력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계속되고 더 강해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다칠 수 있는 광범위한 거시적 위험과 이슈에 민감해질수록, 기업들은 더욱 ESG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낼 수 있으며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업종 전환으로 기업 가치 올린 '소니'

세계에서 가장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평가기관마다 기준과 방식이 다르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선정한 '2020년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 기업(The 100 Most Sustainably Managed Companies in the World)'의 1위는 '소니(Sony)'였다.

워크맨과 브라비아TV, 노트북 등으로 세계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소니는 2000년대 들어 한국·중국 업체에 밀리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TV·노트북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던 2011년에는 역대 최악인 4600억 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니는 기술력과 콘텐츠를 융합해 하나의 콘텐츠를 가진·스마트폰·게임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전

략으로 반전을 모색했다.

그 결과 2020년 소니 매출 비율은 게임이 31%, 전자 22%, 음악 19%로 완벽하게 소프트웨어·미디어 기업으로 변신했다. 순이익은 1조엔을 달성했는데, 이는 1946년 소니가 창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업의 전환은 실적뿐 아니라 ESG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탄소 배출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콘텐츠업'으로 체질이 변하면서 ESG 등급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 기준 A등급에서 AA를 거쳐 마침내 최고등급인 AAA로 상승했다.

소니는 2050년까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5년까지 환경 중기 목표인 'Green Management 2025'를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제품 1대당 플라스틱 사용량 10% 절감 ▶신규 설계 소형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폐지 ▶사무실 온실가스 배출량 5% 절감 ▶총 전력 사용량 중 신재생 에너지 전력 사용량 15% 이상 증가 등이다.

소니는 2014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투자 부적격'의 '정크(Junk)' 선고를 받는 수도를 겪은 적도 있다. 하지만 소니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리고 '업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모델 혁신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한 ESG 경영은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만들어냈다.

지구촌 물 부족, 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MS'

ESG 경영에 IT를 접목시켜 ESG 평가는 물론, 높은 기업가치와 실적까지 보인 기업도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S)'이다. MSCI가 평가한 MS의 ESG 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 시가총액은 1조7000억 달러로 애플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2021년 7월 말 기준).

MS는 지난해 9월 지구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사 캠퍼스의 물 사용량을 줄이고, 물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재생수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의 '현실 인지 엔진(Perception

Reality Engine)'. 현실 인지 엔진은 강수량, 지표수 양, 식물 성장 등을 데이터로 지역의 물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지역을 식별해 물 부족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 '애저 IoT 중앙 정부 앱 템플릿'에서 실시간으로 수질 및 물 소비량,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사항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MS는 이 기술을 에너지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펌프 전문회사 그룬포스(Grundfos) 등에 제공하며 수익원을 새롭게 창출하기도 했다.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나틱 프로젝트(Project Natick)'도 MS의 ESG 혁신 계획 중 하나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수로 자연 냉각시키고, 데이터 입출력과 연산에 필요한 전력은 조력·파력발전으로 조달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해 실용성을 입증했다. 이처럼 MS는 탄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조직에 2025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후 혁신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현 중이다.

ESG 경영에 올인하는 글로벌 기업들

석유·화학업체들도 잇따라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ESG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유럽 최대 정유 회사인 네덜란드 '셸(Shell)'은 풍력·수소·태양광 산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석유 생산량의 6%(100억 달러 가치)를 차지하는 텍사스 유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화학 회사 '바스프(BASF)'는 유럽 전역의 공장을 신재생 에너지로만 가동하기 위해 해상 풍력발전소를 인수하고 2조원을 투자해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은 10년 안에 석유와 가스 생산을 40% 줄이고, 신규 국가에서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브라질에서 재배한 사탕수수에서 바이오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고, 수소 에너지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6년 동안 엄격한 '자체 ESG 지수'를 운영하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왔다.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력사용 효율까지 낮추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를 다양화하고, 젊은 직원이 장년층 직원을

도와주는 '역방향 멘토링' 등 포용적 문화를 장려한다. 남녀 성비도 2025년까지 50대 5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Gender-Equality Index) 기업에 선정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기업에 있어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차별화된 ESG 경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우수 기업
(The 100 Most Sustainably Managed Companies in the World)

순위	회사명	산업	나라
1	Sony	Hardware	Japan
2	Philips	Medical Equipment & Supplies	Netherlands
3	Cisco Systems	Hardware	U.S.
4	Merck KGaA	Biotechnology & Pharmaceuticals	Germany
5	Iberdrola	Electric Utilities & Power Generators	Spain
6	LG Electronics	Hardware	South Korea
7	Melia Hotels International	Hotels & Lodging	Spain
8	HP	Hardware	U.S.
9	Georg Fischer	Industrial Machinery & Goods	Switzerland
10	Sekisui Chemical	Home Builders	Japan
11	Arkema	Chemicals	France
12	Ericsson	Hardware	Sweden
13	AGC	Construction Materials	Japan
14	Genting	Hotels & Lodging	Malaysia
15	Bank of Montreal	Commercial Banks	Canada
16	CSX	Rail Transportation	U.S.
17	Mahindra & Mahindra	Automobiles	India
18	Xerox Holdings	Hardware	U.S.
19	Caterpillar	Industrial Machinery & Goods	U.S.
20	Cie. de Saint-Gobain	Construction Materials	France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경제 공부, 어렵지 않아요!

경제칼럼 주식, ETF, 부동산... 다들 재테크를 알차게 해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늘 제자리인 것만 같다. 금융문맹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어려운 단어가 난무하는 전문 강연이나 두꺼운 전공 서적에 멀미할 필요 없다.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떠먹여 주는 경제 콘텐츠를 소개한다.

글= 김진구 자유기고가



YOUTUBE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구독자 37.9만 명

삼프로TV-경제의신과함께

주식판에 떠도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기관과 외인들이 공모도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존 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전업투자자가 아닌 개인도 장기 투자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그에게 ‘장기’의 의미는 단지 1~2년이 아닌 수십 년의 시간이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함께해야 할 습관이라고 말하는 존 리의 투자관이 궁금하다면 그의 채널을 들어다보자.

이베스트 이리온
구독자 14.6만 명

이효석 아카데미

이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유튜브에는 그 질문에 답해주는 채널이 수없이 많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친구가 필요한데, 삼프로TV가 그런 존재다. 콘텐츠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데다 그들이 초빙하는 게스트의 수준이 높아 내용의 질도 좋다.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계속 듣고 보게 되는, 이제는 구독자 150만이 다 돼가는 대박 채널. 경제 채널을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삼프로TV를 추천한다. 그걸로 충분할 테니까.

이효석 아카데미
구독자 9.81만 명

돈이되는투자 becoming smartinvestor

경제 유튜브 바이블급인 삼프로TV에 출현한 애널리스트 중 연반인(연예인+일반인)급의 인기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종종 있다. SK증권 자산전략팀 이효석 팀장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주식시장에서 왜 카카오나 테슬라 같이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지 설명하는 것이 그의 전공. 인터넷 주식이나 성장주에 관심 있는 이에겐 그의 채널이 매우 도움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그린 레볼루션 같은 대변혁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효석 팀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돈이되는투자 becoming smartinvestor
구독자 3.5만 명

아무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외국 기업의 정보를 얻기는 꽤 어렵다. 특히 중국 기업이라면 더욱. 일단 언어의 장벽이 있고, 정치·사회·문화가 다른 데다 기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된 주식투자자라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투자하지 않더라도 트렌드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중국의 첨단기업, 인터넷기업, 그리고 성장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기에 유용한 채널이다.

BOOK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 페이지2북스

2020년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을 겪고 나서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피는 1400까지 내려갔다가 두 배 상승해 이미 3200을 돌파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꼭지가 어디인지 모르게 상승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자면 미국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돈을 찍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건영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연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쉽게 설명하며 연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장우석·이향영 | 페이지2북스

구글에 ‘다우존스 인덱스’나 ‘나스닥 인덱스’를 검색해 보자. 5년간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두 번의 하락은 있었지만 결국 두 배, 세 배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나스닥 인덱스나 다우존스 인덱스를 사고 그냥 묻어두었다면 두 배 혹은 세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미국 주식의 장점이다.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우량주를 꾸준히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준다는 것. 미국 주식에 미친 두 사람이 설명하는 ‘미국 주식 하는 법’이 이 책 속에 있다.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 리 | 지식노마드

‘주식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 아예 멀리하고 있거나 혹은 ‘주식은 크게 한 방 벌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존 리에 따르면 전자는 금융문맹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존 리는 미국 직장인들은 법이 강제하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주식에 장기 투자해 퇴직 시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고 있다며, 한국 직장인들도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주식과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빛 메달의 주인공, 주몽의 후예를 만나다

피플인사이드 2020 도쿄 올림픽의 궁사들이 모든 경기를 마쳤다.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한 결과, 금빛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 특히 이번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안산 선수와 김제덕 선수, 나이는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제 몫을 톡톡히 한 금빛 메달의 주인공을 만났다. 글·사진=박린 <중앙일보>기자

안산, 3관왕 뒤부모님께 처음 꺼낸 말은 “부럽지?”

한국 양궁 최초의 ‘3관왕’ 안산.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간 스무 살 궁사의 침착하고 담담하게 활을 쏘는 모습은 너무나 믿음직스러웠다.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안산이 부모님께 처음 꺼낸 말은 “부럽지?”로 스무 살 풋풋함이 묻어났다.

Q 대회를 마친 소감은.
첫 올림픽 출전인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한국에 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합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Q 올림픽 3관왕에 올랐다.
아직은 실감이 많이 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실감 날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와~ 3관왕이다’ 하고 있어요.

Q 부모님과 통화는 했나.
개인전 끝나고 통화했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럽지?’ 이랬죠(웃음).

Q 도쿄 올림픽 ‘최고의 한방’을 꼽자면.
4강 슛오프 때 쏜 화살이 최고로 잘 쏜 것 같아요. 가끔 쏘는 순간 ‘이건 10점이다’ 확신이 드는 화살이 있거든요. 이번 오진혁 선수의 마지막 ‘끝!’ 그런 것처럼. 저도 쏠 때 ‘이건 10점’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Q 목표를 다 이룬 것은 아닌지.
주위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던 한데, 저는 목표를 새로 세워가면서 운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게는 운동선수로서의 목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Q 활 쏘는 단계 중에서 ‘지금 안산의 양궁 인생’은 어디쯤인가.

슈팅 순간 정도요. 가장 파워풀한 동작이기도 하고 화살과 저의 운명을 말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이 슈팅 순간인 것 같아요.

Q 나에게 도쿄 올림픽이란? 다섯 글자로.

‘못 잊을 시합’ 일단 성적이 정말 좋기도 하고,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제 자세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쏘기 때문에 못 잊을 시합인 것 같아요.

Q 김제덕의 “파이팅”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긴장이 풀리는 것도 있었고, 혼성이나 단체전을 할 때 파트너가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은 처음 봐서 재미있었어요. 특히 보는 것이(웃음).

Q 앞으로 남은 목표와 다음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기대해도 되나.

제 목표는 세계 신기록을 하나라도 세워보는 것입니다. 양궁이 워낙 세대 변화가 빠르다 보니 확신은 못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파리 올림픽(2024년)에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제덕 “저도 차분히 쏘고 싶는데... 성격 튀어 ‘파이팅!’”

대한민국의 양궁 경기는 이 선수의 외침으로 시작됐다. 가장 고요한 스포츠라 여겨졌던 양궁에서 가장 힘이 넘쳤던 김제덕 선수. 경기마다 힘을 불어넣는 커다란 ‘파이팅’이 코로나 지친 국민들 마음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Q 대회 마친 소감은.
많이 즐거웠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표를 이뤘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이번 대회 최고의 한 방은.
저는 남자단체전 중 일본과 4강전 당시 슛오프 때가 제일 긴장됐습니다. 활을 들기 전에는 10점을 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어요. 근데 활을 당기고 슈팅 하기 전에는 10점을 쏜다는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좀 더 차분하게 자신 있던 슈팅만 하자’ 했고 운이 따라 줬던 것 같습니다.

Q 축구에서 황의조의 양궁 세리머니가 화제였는데.

황의조 선수가 화살 세리머니를 해주셨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못 봤지만,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화살 세리머니’를 해주셨더라고요. 황의조 선수! 골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김제덕은 천재라고들 한다.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천재나 재능 있다’ 이걸 아니고, 노력을 하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양궁을 하며 재밌어하고 즐기면서 자신감

도 생긴 것 같습니다. 천재는 아닙니다. 처음에 활을 잡았을 때 잘 쏘진 못했거든요. 아마 양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재미를 붙이면서, 차근차근 실력이 쌓인 것 같습니다.

Q 이번 대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쉬움은 없습니다. 후회 없이 쏘다고 생각해 후련합니다.

Q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입니다. 제가 올림픽에 나오면서 꿈의 목표(남자 단체전 금메달)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서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엄청 만족합니다.

Q 마음을 가다듬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욕심보다는 제 자신을 믿고 ‘즐기면서 쏘라!’ 그냥 계속 즐기면서 쏘라고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Q ‘파이팅’은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서 외치나.

맞습니다. 저의 꿈이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는데, 오진혁 선수나 김우진 선수 따라 차분히 쏘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성격이 좀 방방 튀는지라 ‘파이팅’ 크게 외치면서 그 경기 흐름을 즐기자 생각했죠.

Q 이번 올림픽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한국 파이팅!

Q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전해준다면?

양궁은 마지막 화살을 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이 순간이 끝날 때까지 힘내시면서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



올림픽 기초 상식퀴즈

성명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사원번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2020 도쿄 올림픽이 지난 7월 23일 막을 올렸다.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개최일이 미뤄졌지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의 열정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 준비했던 기량을 맘껏 쏟아내는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모두가, 마지막 폐막식까지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상식 퀴즈를 준비했다. 정리=강은비

OX 퀴즈

- 올림픽 대회기인 오륜기(올림픽기)가 정식으로 게양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앤트워프 대회 때부터다.
- 올림픽 메달은 반드시 원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처음 경기가 치러진 것은 2000년 시드니 대회다.
- 국제 신체장애인 체육대회로 1960년 로마 올림픽 직후 4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체육대회의 이름은 패럴림픽이다.

객관식

- 1988 서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획득한 총 메달의 개수는?
① 30개 ② 33개 ③ 36개
-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새로 추가된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서핑 ② 당구 ③ 스포츠클라이밍
- 양궁에서 화살이 과녁의 정중앙을 명중시킨 것을 뜻하는 용어는?
① 엑스텐 ② 로빈훗 애로우 ③ 샷오프
-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국가는?
① 영국 ② 캐나다 ③ 프랑스
- 펜싱은 검과 경기 방식에 따라 3개 종목으로 나뉜다. 온몸을 다 공격할 수 있는 펜싱 경기는 무엇인가?
① 플뢰레 ② 에페 ③ 사브르

(역사 이래 인류를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⑥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⑦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⑨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⑩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

주관식 ※QR코드 퀴즈

- 올림픽 대한민국 배구 대표 선수 중 현대건설에 소속돼 있는 선수의 이름은? (초성힌트: ㅇㅎㅈ, ㅈㅈㅇ)
- 고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말타기 훈련에 목마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 운동이다. 기계체조 종목 중 하나이며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최초로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 9년 만에 신재환 선수가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이 올림픽 종목은? (초성힌트: ㄷㅇ)
- 1896년에 열린 하계올림픽 첫 개최지는 어느 국가의 어느 지역인가? (초성힌트: ㄱㄹㅅ ㅇㅇㄴ)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지난 호 주관식 답
1. 뇌절
2. 실존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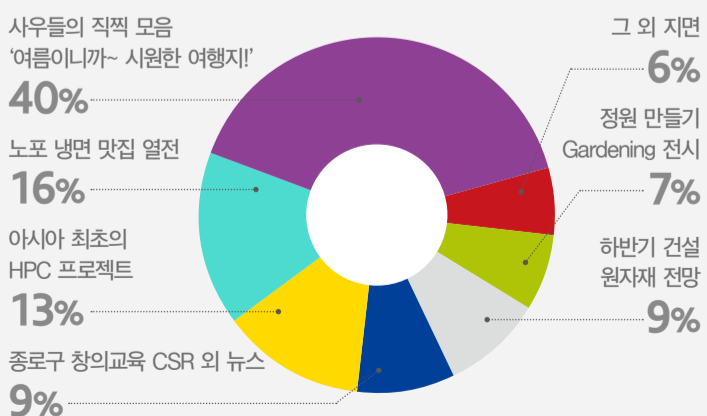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402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크리에이터
노하우 전수

#사우들의 전국
맛집 공유

#MZ세대들의
재테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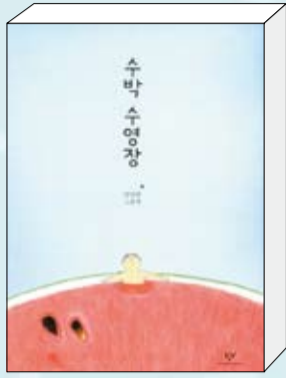
#이색
배달음식
Top10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8월 20(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상품 소정의 상품(5명)



수박 수영장
안녕달 | 창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매번 감동을 선사하는 안녕달 작가가 쓰고 그린 첫 번째 그림책이다. 햇빛이 짙은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큰 수박이 ‘썩’ 하고 반으로 갈라진다. 수영장으로 변신한 수박 안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긴다는 귀여운 상상력이 돋보인다. 책을 넘기면 청량한 수박의 색깔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 붉게 타오르는 노을, 여름밤의 반딧불이까지 시골 마을의 여름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나이, 성별, 장애 등 어떠한 편견과 구별 없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다정한 시간을 보낸다. 색연필로 그려낸 몽글몽글하고 보드라운 색깔처럼 이웃에 대한 따뜻하고 포근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림책. 다정한 시선이 그리운 사람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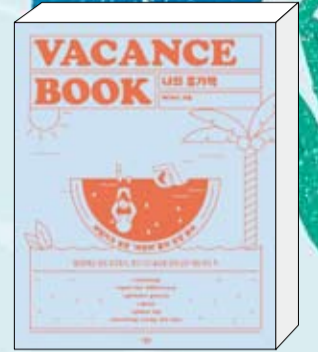
아무튼, 여름
김신희 | 제철소

아무튼 시리즈의 서른 번째 책. 소소하고 다정한 글로 독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김신희 작가가 자신이 사랑해 마지않는 계절인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데 묶어 놓았다. 맥주, 머슬 셔츠, 수영, 냉면, 대나무 돛자리, 여름휴가, 전 애인까지. 마치 여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같다. 여름의, 여름에 의한, 여름을 위한 글들을 읽고 있으면 여름이라는 계절의 감각이 생생하게 피부로 와 닿는다. 단순히 여름을 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함께한 누구보다 젊고 담대하며 치열했던 지난날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리워한 건 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나였다’라는 책의 부제처럼 팬데믹 장기화에 폭염까지, 유쾌하지 못한 낯선 여름일지라도 너그러이 보낼 마음의 여유를 선사할 책.



‘여름’으로 떠나는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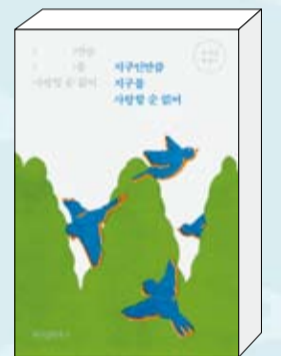
‘휴가는 어디로 가?’라는 한여름의 안부 인사로 여기던 말조차 쉽사리 건넬 수 없게 된 요즘. 비록 해외의 근사한 리조트나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이 터지는 축제의 현장을 즐기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여름을 즐겨야 할 권리가 있다. 그 어디도 아닌 ‘여름’으로 떠나는 당신에게, 그곳이 어디든 ‘편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한다.
글=권나윤 칼럼니스트



나의 휴가책

에디터스 | 니들북

디렉터, 작가, 디자이너가 모여 만든 콘텐츠기획집단 에디터스가 ‘이번 휴가 때 뭐하지?’라는 질문에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행자의 감성으로 엮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 놀이책을 만들어낸 것. 전 세계의 대표 여행지와 여행 중에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를 컬러링·미로찾기·숨은그림찾기·틀린그림찾기·사다리타기·따라그리기 등 다양한 놀이로 구성해 답았다. 각양각색 개성을 가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업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다채롭게 누릴 수 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고이 접어두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 우리 집 소파 위를 휴가지로 정했다면, 함께 휴가를 즐길 귀여운 동반자로 『나의 휴가책』을 준비해 보자. 지난 여행의 기억을 추억하고 다음의 여행을 기대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 있을 것이다.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

정세랑 | 위즈덤하우스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소설가 정세랑의 첫 에세이! 여행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작가가 어쩌다 보니 뉴욕, 런던, 독일로 떠나게 된 여행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좋아하지 않는 여행에서조차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해버리고 마는 이 사랑스러운 지구 여행자의 기록에서,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유명인의 추천사가 아닌 책을 읽은 독자들과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독자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여행’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유량을 싫어하는 사람도 떠나고 싶은 요즘,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 희망적인 여행 에세이가 아닐까.

팥빙수의 전설

이지은 | 웅진주니어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찾아오면 절로 생각나는 팥빙수. 팥빙수에 대한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을 담은 그림책이다. 『팥죽할멈과 호랑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호랑이가 등장하는 옛이야기에서 영감을 얻고, 그 위에 신선한 발상과 기막힌 반전들을 가득 얹어 눈을 땔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풍경이나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하고 외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귀엽기만 한 눈호랑이, 무심한 듯하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고 유머가 넘치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팥빙수의 전설’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그림책을 열어보자. 앞으로 팥빙수를 먹을 때마다 절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테니!



휴가
이명애 | 모래알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회 선정, BIB 황금패상, 나이 콩쿠르 은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명애 작가의 신작. 낯선 휴가지에서 서서히 몸과 마음을 열어 마침내 온전히 충전되는 과정을 오로지 이미지만으로 차분하게, 그러나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손꼽아 기다려온 휴가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쌓여 있던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즐거운 것은 아니다. 사진과는 전혀 다른 속도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날씨요정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는 일.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길목에서 새로운 인

연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휴가지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닐까. 책장을 넘기다 보면 결국 어디에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휴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